

## 1920년대와 1930년대의 한국경제학계 동향

尹 起 重

본고는 이순탁 교수가 교육과 연구활동을 하던 1920년대와 1930년대 한국경제학계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1910년대 후반의 제1차세계대전과 휴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그리고 한일합방, 3·1만세운동 등 모두가 충격의 연속 끝에 1920년대를 맞는다. 1910년대부터 사립전문학교의 설립과 1920년대 사립과 관립 전문학교 그리고 대학이 설립되면서 한국에 경제학 연구가 일기 시작하였다. 경제학 연구는 연전과 보전 그리고 고상과 성대에서 일고 있었으나 경제학과는 없이 대개 상학의 보조과목으로 그리고 성대에서는 법학의 보조과목으로 개설되어 경제학 교수가 모이게 된다. 가장 활발한 곳이 연전과 보전이었다. 이들 교수들의 교육은 일본이 주축이었고 간혹 미국의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경제학계의 개화가 진행되던 1930년대 말 중·일전쟁과 1940년대의 태평양전쟁으로 경제학의 연구는 암흑기를 맞게 된다.

### I. 서 론

李順鐸 교수는 1923년부터 1950년까지 연세대학교의 경제학 교수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실제 경제학의 연구활동은 1938년으로 마감했고, 1938년부터 투옥과 강제사임 그리고 1945년부터는 정계에서의 활동이 더욱 활발하였다. 한국경제학계의 기간을 1920년대와 1930년대로 한정하는 것은 이순탁 교수가 학계활동에 전념하던 시기의 경제학계 배경을 알고자 하는 데 있다.

한국경제학계는 경제학의 연구대상을 한국경제와 그와 관련된 분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한국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다. 실제로는 한국인 학자와 일부의 일본인 경제학자가 포함된다. 이와 같이 범위를 정하고 보면 당대의 한국경제학계동향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당시의 연구업적에 대한 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학의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구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연구자

와 관련하여 당시의 경제학 교육상황도 한 분석대상이 된다.

이상과 같은 한국에서의 경제학에 대한 역사성을 분석함에 있어 경제학이 사회과학의 한 분야라는 점에서 당시 일본의 식민지라는 여건 외에 1920년대와 1930년대를 만들어 낸 1910년대 말기의 세계사적 동향도 한 분석대상이 된다. 그것은 당시 학계동향의 필연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II. 1920년대를 맞는 국내외 정세

1920년대를 맞는 1910년대 말기의 국내외의 정세는 경제학계는 물론 정치경제에 큰 변화의 조짐이 엿보인다. 그것은 1910년 한일합방으로 한국인의 피지배민족으로의 전략을 비롯하여 1913년에는 중국에서 청조 말 원세개(袁世凱)의 등장, 1914년에는 사라예보사건으로 제1차세계대전이 폭발되었고, 1916년에는 독일이 해상에서의 항해선박의 무차별 격침을 선언했고 이어 미국의 대독 선전포고로 이어진다. 1917년에는 제정 러시아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혁명정부가 수립되자 다음 해인 1918년에는 이를 저지하고자 일본을 비롯하여 유럽의 몇 왕정국가가 병력을 동원했으나 모두 혁명군에 패배, 퇴조하게 된다. 이 해 1918년 11월에는 유럽을 휩쓴 제1차세계대전의 휴전이 성립되고 다음 해인 1919년 초에 휴전에 따른 베르사이유강화회의가 개최되었고 이 때 미국 윌슨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선언에 힘입어 3·1만세 독립운동이 일기 시작하였다.

한편 일본 국내에서는 1916년 요시노 사쿠소(吉野作造)의 「민주주의」 논문 발표, 미노베 다쓰키치(美濃部達吉)의 저서 『헌법강화』(1912)에서 주장하는 천황기관설, 그리고 정당정치를 주장하는 政友會 총재 하라 게이(原敬)의 내각 성립, 또 백남운의 스승 후쿠다 도쿠쇼오(福田德三)와 앞에서 언급한 요시노(吉野作造), 미야케 세쓰레이(三宅雪嶺) 등 당대 최고 수준의 지식인들이 모여 黎明會를 조직하여 보통선거제도의 도입과 정우회에 대립되는 호헌과 자유주의 노선을 주장하는 등 일본정계에 큰 파장을 던져 노동운동이 활발해졌다. 즉, '友愛會'라는 소극적인 노동운동단체가 1919년에는 大日本労働總同盟友愛會로 개칭하여 노동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이러한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상주의 의식의 제고와 사회운동의 전개는 바로 데모크러시(democracy)와 사회주의에 관한 출판물이 쏟아져 나오고 또 이러한 노선의 단체가 조직 결성되면서 日本共産黨이 결성되고 이러한 동향의 반작용으로 日本國粹會가 조직 결성되어 극우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그 한 단면으로 1921년에 하라(原) 수상이 극우파로부터 암살당하고 나아가 치안경찰법의 개정과 치안유지법을 제정, 공

표하고 데모크러시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을 억압, 탄압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국내외의 사건들은 1920년대와 1930년대 한반도에 여러 가지 형태로 영향을 끼쳤다. 우선 3·1운동을 계기로 과거에 육해군 대장을 조선총독에 임명하던 제도를 바꾸어 문관으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총독이 사이토 미노루(齊藤實)로 교체되었다. 사이토는 과거의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를 펴 나가겠다고 하였다. 그 한 단면으로 공무원과 교사가 제복을 착용하고 칼을 찻던 것을 중단하는 것과, 헌병경찰을 일반경찰로 대체하는 것 등이 이루어졌다. 약탈과 탄압은 여전히지만 분위기의 변화는 3·1운동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정치의 또 다른 단면이 大學令과 改正高等學校令에 근거하여 서울에 사립으로 운영하던 고등상업을 1922년에는 京城高等商業學校로 그리고 1924년에는 京城帝國大學 설립이 칙령으로 결정 하달되고 26년에야 신입생을 받았다.

1917년 11월, 러시아의 볼셰비키혁명은 마르크스(Karl Marx)의 『자본론』 제1권이 출간된 지 꼭 50년 만에 실현되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그리고 1910년대에 일기 시작한 다이쇼데모크러시(大正democracy)운동 사조는 한국에서도 마르크스의 『자본론』 이론의 도입과 보급 그리고 외부의 사회주의운동노선에 일부에서는 항일과 독립운동이 편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유주의운동이 일본에서는 정치계의 극우파 등장과 육군의 중국진출을 앞두고 청년장교들의 반란(1932년 5·15사건과 1936년의 2·26사건)등은 자연발생적인 데모크러시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을 탄압, 좌절시키게 된다. 이러한 지식인의 탄압은 1920년대부터 1930년대 말까지 가속화되어 드디어는 1949년의 제2차세계대전으로 이어진다.

### Ⅲ. 경제학 교육과 연구기관

1920년대와 1930년대의 경제학 교육과 연구기관이라 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은 延禧專門學校, 普成專門學校, 京城高等商業學校, 京城帝國大學, 평양에 위치한 崇實專門學校뿐이다. 혜화전문, 명륜전문, 이화여전 그리고 숙명여전이 있었으나 경제학교수는 한 명도 없었다. 경제학교수가 있다해도 이들 고등교육기관에는 경제학 학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모두가 상과(商科)에서 몇 개 과목 또는 법과에서 몇 개 과목의 경제학 과목이 개설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보조과목을 위해서 경제학교수가 채용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최초의 과학교육은 연희전문학교 수물과였다고 한다. 기록에 의하면 경제학 과목이 대학에서 최초로 개설, 강의된 곳은 평양의 숭실학교이다. 즉, 崇實學

校大學科에서 경제학을 대학과정 2학년과 3학년에서 주 3시간씩 강의하였다고 한다. 과목은 미국경제사와 근대경제사였다. 그러나 1925년 숭실전문학교로 개편되기 이전에 이러한 과목을 담당한 교수나 강사는 웨링스(B.W. Willings)뿐이었다. 한국인 경제학교수는 1921년 이후에나 가능하였다. 한국내의 고등교육기관에서 경제학강의를 담당할 최초의 인물은 연희전문학교 상과의 白象圭인 것 같다. 백상규는 전라도 출신 부호 은행가의 아들로 15세까지 서울에서 한문과 영어를 배우고 16세되던 해인 1896년에 미국에 유학 고등학교와 브라운 대학(Brown Univ.)에서 정치경제학의 학부과정을 마치고 1907년부터 1917년 연전교수로 올 때까지 공무원으로 일하였다. 1917년 이후 1923년 4월 보성전문학교로 옮길 때까지 연희전문에서 경제학, 영어, 철학을 강의했다고 한다. 백상규가 연희전문학교를 떠난 뒤 1923년 4월부터 李順鏞이 그 뒤를 이었으며 1925년에는 白南雲, 趙炳玉을 맞이하면서 상과 교수진이 강화되었다.

普成專門學校(고려대학교 전신)는 1915년부터 상학과 법률학 교육을 위한 전문학교과정이었으나 총독부의 전문학교규칙에 의거 1922년까지 전문학교라 부를 수 없었고 공식명칭은 私立普成法律商業學校였다. 1922년부터 정식 전문학교가 된 셈이다.

1915년 이전 보성법률상업학교시절의 교수진은 金大熙, 尹鶴炳, 尹定夏, 張弘植, 文尙宇 등인데 이들은 동경상업학교 또는 동경고등상업학교 출신으로서 상학분야를 담당했을 뿐 경제학을 담당 강의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한 예로서 김대회를 보면 1895년 17세에 관비유학생으로 선발 도입하여 慶應義塾 보통과를 1년 만에 졸업하고 사립동경상업학교에 입학하여 4년간 수학 졸업하고 귀국하여 상공업계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하다 1911년부터 보성법률상업학교 교수가 된다. 짐작컨대 위에 언급한 이들은 동경상업학교에서 수학했고 1916년부터 교편을 잡은 윤호병만이 고등상업시대에 수학한 것 같다. 보성전문학교라는 정식 명칭으로 출발한 1922년부터 상과의 보조과목으로 경제학 과목이 개설되었다. 경제학의 개설과목은 경제원론, 재정학, 화폐론 그리고 통계학 4개 과목이었다. 1925년부터는 사회정책과목이 추가 개설되었다. 초기의 경제학교수로는 中央大學에서 수학한 洪性夏, 연전에서 전직한 백상규가 1920년대 교수였고, 1930년대에 경제학교수가 보강되었다.

京城高等商業學校는 본래 1907년 東京東洋協會專門學校(후일 東洋拓殖大學으로 개칭) 京城分校로 출발하였으며 당시의 수학 연한은 6개월에서 1년이었다. 1915년에는 명실공히 東洋協會殖民專門學校 京城分校로 개칭하게 된다. 이것은 1918년 4월에는 東洋協會 京城專門學校로 독립시켰으나 다시 1919년 5월에는 내외정세의 변화와 산업계의 요청에 의해서 財團法人 私立京城高等商業學校로 개칭, 발전하게 된다.

본래 이 기관은 1900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대만을 귀속시킨 이후 대만경영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일본의 동경에 설립되었으나 러·일전쟁이 끝난 후 중국의 대

련, 여순지방을 조차지로 하고 한국을 보호국으로 함에 따라 확대된 식민지 경영요원의 양성을 위해서 서울에 분교로 설치되었었다. 당초는 일본 정계의 원로 가쓰라 다로(桂 太郎)의 역량으로 설립운영되었으나 후일 서울에서는 당시 총독부, 滿洲鐵道株式會社가 공동출자하여 재단법인을 1920년에야 설립하여 「재단법인 사립경성고등상업학교」로 인가된 것이다. 이러한 명칭도 당시 조선상업회의소 연합회와 釜山商議所가 상공인 양성기관설립을 강력히 요구한 결과라 하겠다. 그 후 1922년에는 재단법인을 해산시키고 관립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과거와는 달리 한국인과 일본인 공학제로 하였다. 그러나 실지 한국인과의 공학제는 1925년에야 비로소 실시되었다. 이와 같이 처음 설립목적이 일본인의 식민지 경영요원 양성목적이었기 때문에 한국인 교수는 한 명도 없었다. 또 설립목적이 그러하듯 강의 과목도 '동양경제사정', '경제원론' 등만 있을 뿐이었다.

오늘날 서울대학교의 모체인 京城帝國大學은 3·1운동 이후 조선총독에 취임한 사이토 미노루의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설립, 추진되어 1926년 4월에야 법문학부와 의학부로 출발하였다. 국내에서는 최고학부에 해당되므로 처음부터 경제학 과목이 개설되었으며 또 경제학 담당 교수도 처음부터 취임하였다. 처음에는 경제학, 재정학 그리고 통계학이 개설되었으며, 1930년대에는 경제사, 경제학사, 금융론, 사회정책 그리고 경제정책이 개설되었고 이들 과목을 담당할 교수도 늘어났다.

교수진도 경제학 담당교수로서 1926년부터 취임했던 사람은 시가타(四方 博), 야마다(山田文雄)였고 1927년에 취임한 사람은 2명, 1929년에 2명씩이나 늘어났다. 이들 가운데 처음 채용되었던 시가타와 1929년에 채용되었던 스스끼(鈴木武雄) 교수 등은 한국경제에 관한 많은 업적을 남겼다. 이 기관에서 한국인 교수로는 陸芝修가 예과 소속 강사로서 경제지리를 담당했고, 조수로서는 후일 보성전문학교 교수가 된 金光鎭과 朴文圭가 있었다.

이상의 교육기관 외에 숭실전문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수원고등농림학교, 이화여자전문학교, 혜화전문학교, 명류전문학교, 숙명여자전문학교 등이 있었으나 이들 기관에서는 교양과목으로서 경제학 관련 과목이 개설되었을 뿐이다. 또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경제학자가 전임으로 있지도 않았다. 이상으로 보아 1920년대와 1930년대에 한국에서 경제학을 교육하고 경제학자가 연구하던 기관은 연희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 경성고등상업학교 그리고 경성제국대학 네 기관을 들 수 있다.

#### IV. 경제학 개설과목

이상 4개 고등교육기관의 경제학 교육내용은 3단계로 나누어 본다. 그 첫 기간은 1920년대, 즉 1930년 이전을 제1기로, 1931년부터 1935년까지를 제2기로, 그리고 1936년부터 1940년까지를 제3기로 나누어 본다. 제1기에는 연희전문학교가 1915년에 개교했으나 상과의 입학생은 1917년에 비롯되었고, 보성전문학교가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 1922년 4월부터 출발하였다. 京城高商(경성고등상업학교의 약칭으로 경성고상이라 함)도 1920년부터 고등상업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출발되었다. 그리고 경성제국대학도 1926년 4월부터 발족되었기 때문에 1930년 이전을 제1기로 한다. 1931년부터 1935년까지를 제2기로 한 것은 1936년에 일본의 중육대륙침략이 시작되었기 때문으로 1936년 이전 기간인 1931년부터 1935년을 한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1936년부터 1940년까지를 제3기로 설정한 것은 대륙침략전의 출발해이기도 하지만 한국에서 지식탄압, 특히 경제학교수의 수난기간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제학과목의 개설경향도 변했을 것으로 보인다.

제1기인 1930년까지 4개 고등교육기관의 기관별 경제학 과목 개설동향을 보면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의 경우 다음과 같다.

경제학, 재정학, 통계학, 경제정책

경성고상(경성고등상업학교의 약칭)의 경우는 위의 네 과목 가운데 경제정책 대신에 다음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동양경제사정

중국을 비롯한 일본인의 침략전략의 일환으로 '동양경제사정' 과목을 개설한 것은 과거 일본의 동양척식대학 서울분교의 일면을 엿보이게 한다.

보성전문학교의 상과에 개설된 경제학과 그에 관련된 과목은 성대(경성제국대학의 약칭)의 법문학부에 개설되었던 네 과목 이외에 추가적으로 5개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그 추가된 과목은 다음과 같다.

화폐론, 은행론, 교통론, 사회정책, 원서강독

상업실무과목이 추가되어 상학교육이 강조된 특징이 보인다.

연희전문학교 상과의 경우도 보성전문학교 상과에서와 같이 성대에서 개설한 네 과목 이외에 세 과목이 추가된다. 그 추가된 세 과목은 다음과 같다.

화폐론, 은행론, 교통론

연전상과에서도 상업실무자 양성의 특징이 엿보인다. 성대에서 개설한 네 과목은 법문학부의 보조 과목인데 반해 경성고상의 경우는 식민지 경영요원양성이라는 목적성이 엿보이고 연전과 보전의 경우는 상업실무요원 양성이 목적이었다는 것이 처음부터 명확하다.

제2기라 할 수 있는 1931년부터 1935년까지는 우선 경제학과 그와 관련된 강의과목이 대폭 증가한다. 성대 법학부의 경우는 제1기에 네 과목이던 것이 10개 과목으로 증가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학, 재정학, 통계학, 금융론, 농업정책  
상공정책, 사회정책, 경제사, 경제학사, 연습 또는 특강

개설과목의 증설내용을 제1기와 비교하면 제1기의 경제정책이 농업정책과 상공정책, 사회정책으로 분할되고 금융론, 경제사, 경제학사 그리고 연습 또는 특강이 새로이 신설되었다.

경성고상의 경우도 7개 과목이나 증설되었다. 즉, 경성대학 법문학부에 개설된 10개 과목 가운데 사회정책, 경제학사 그리고 연습 세 과목 대신에 다음의 4개 과목이 신설되어 있다.

화폐금융론, 은행론, 교통론, 교통정책

제1기에서와 같이 동양경제사정은 계속 개설되고 있다.

보성전문 상과의 경우도 성대 법문학부에 개설된 10개 과목 가운데 사회정책, 경제학사, 경제사 그리고 연습이 개설되지 않은 데 반해 다음 과목이 추가개설되어 있다.

은행론, 교통론, 무역과 외환론, 외국경제

개설된 과목수는 11개 과목으로 과목수로는 경성고상과 같다.

연회전문의 경우는 성대의 10개 과목 가운데 사회정책과 경제학사 그리고 연습 세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데 반해 다음의 5개 과목이 추가되어 총 개설과목은 12개로 보전에 비하여 한 과목이 많다.

은행론, 교통론, 외국환론, 농업경영, 경제사정

이상으로 보아 성대의 경우는 경제이론, 정책, 그리고 경제사 과목 중심인데 대하여 경성고상, 보전 상과, 그리고 연전 상과에서는 경제이론, 정책 그리고 경제사 외에 상업실무과목이 추가되거나 정책과 역사과목에서는 성대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법문학부의 보조과목이기는 하나 대학과 전문학교의 차이점이 뚜렷하다.

제3기라 할 수 있는 1936년부터 1940년까지 일본의 중국대륙 침략전쟁이 개시되었고 아시아 전체에 대한 침략전쟁준비가 완성된 기간이라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성대 법문학부에서는 제2기에 비하여 화폐론과 연습 과목이 추가되어 12개 과목이 개설되었었다.

경제원론, 재정학, 통계학, 화폐론, 금융론, 농업정책, 상공정책  
사회정책, 경제사, 연습, 경제학사, 강독 및 연습

이 때 경성고상에서는 성대의 12개 과목 가운데 사회정책, 경제사 그리고 2개의 연습과목이 제외된 반면 12개 과목이 추가 개설되었었다. 제2기에 비하면 협동조합론, 경기변동론, 경제심리학 등이 추가되었었다. 즉, 성대 법문학부 12개 과목 가운데 4개 과목을 제외한 추가되는 과목은 다음과 같다.

동양경제사정, 교통론, 동양경제사, 대륙경제정책  
해운론, 육운과 항공운송론, 물가론, 협동조합론  
경기변동론, 경제통계론, 중국화폐 및 금융론, 경제심리학

성대에서의 화폐론 대신에 화폐 및 외국환론을, 금융론 대신에 은행 및 금융론을, 그리고 상공정책 대신에 공업정책과목을 개설, 강의하고 있었다.

보전 상과에서는 성대에서 개설한 12개 과목 가운데 연습과목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과목이 개설되었고 실무과목으로 5개 과목이 추가 개설되었었다.

동양경제사정, 교통론, 경기변동론, 무역외환론, 경제지리



반면 연전의 경우는 경성고상과 보전상과에 비하여 실무과목은 더 적다. 즉, 이 기간에 성대 법문학부에 개설된 과목 가운데 사회정책과 연습을 제외한 추가과목은 다음과 같다.

동양경제사정, 교통론, 경기변동론, 일본산업론

이상으로 보아 보전과 연전 그리고 성대는 제2기에 비하여 큰 변동이 없으나 경성고상의 경우는 많은 과목이 추가되었다. 보전과 연전의 경우 성대에 비하여 경제학 과목은 이론과 사 그리고 정책이 고루 개설된 데 비하여 경성고상의 경우는 경제사 과목이 개설되지 않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대체로 경제학의 기본인 이론, 사, 그리고 정책과목이 비교적 고르게 개설 강의되고 있었다 할 수 있다.

## V. 경제학 교수의 활동 동향

1920년대와 1930년대 한국에서의 경제학은 불모지대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경제학 전공의 학과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과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해외유학생 대부분이 공무원으로 입신하려 했지 학문연구에 투신하는 경향이 아니었던 것 같다. 해외유학생으로서 최초에 학계에 입문한 사람은 백상규인 것 같다. 그도 미국 유학에서 귀국하여 처음에는 한말 정부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다 1917년 연전 상과가 개설되면서 자리를 옮긴 것 같다. 그는 1923년 4월에 보전 상과로 옮겼다가 1945년 이후는 대한적십자사 총재직에 취임했으며 6·25동란 때 납북되었다. 이는 연전과 보전에서 경제학, 논리학 등을 강의했으나 논문이나 저서로서 뚜렷한 것은 없다. 교육자로 종사했을 뿐이다.

백상규의 후임으로 연전 상과교수로 취임했던 李順鏞은 일본 경도제국대학 경제학 부를 졸업하고 실업계에 1년간 종사하다 연전 상과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연전 교수 재직중 특히 1920년대와 1930년대, 즉 1937년 이전의 저서와 논문 그리고 평론은 56건인데 저서는 『최근 세계일주기』로서 1년간 연전에서 10년 근속으로 공로 1년간의 세계일주여행 중 기행문을 조선일보에 연재한 것을 한 권의 책으로 출판한 것이다. 이 저서 외에 논문과 평론은 55편인데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표 1>과 같다.

편수로는 1편으로 계산되었으나 그 내용 가운데 「마르크스사상 개요」는 동아일보에 37회나 연재되었으며 「마르크스의 유물사관」도 동아일보에 18회, 「조선의 농업」도

〈표 1〉 분야별 논문 및 평론

분 야	편 수
농업 및 한국경제	28
세계경제동향	17
사회주의 및 마르크스 경제학	7
이론경제학 및 역사	3
계	55

15회 또 「마르크스 이전의 경제사상」도 14회나 연재된 것이다. 〈표 1〉에서 사회주의와 마르크스 경제학분야가 7편의 논문이라 했지만 양으로는 가장 많았다. 이순탁은 京都帝國大學 經濟學部에서 카와카미 하지메(河上肇)의 제자인 탓에 '한국의 카와카미'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 당시는 마르크스이론의 해설 설명이지 이론을 지지 주장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8년 그는 사회주의 경제학자라는 누명으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1941년까지 투옥되었으며, 이후에도 4년간의 집행유예로 당시 세브란스병원 경리과에서 사무원으로 일하게 된다.

동경상과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1925년 4월 연전 상과교수로 부임한 이래 당대학계에서 가장 뛰어난 학술적 활약을 보인다. 백남운은 1933년 『조선사회경제사』, 1937년에 『조선봉건사회경제사·上』을 일본의 개조사 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이 두 권의 저서는 1933년 출판된 것이 450여 면 그리고 1937년에 출판된 것이 890면이나 되는 대저라는 점과 이보다 더 주목되는 것은 한국의 역사를 사적 유물사관에 조명 저술한 점이다. 서문에서 우선 기존의 한국역사, 즉 최남선과 신채호의 사관과 동경상대 교수이던 후쿠다(福田) 교수의 한국경제사에 대하여 중세 봉건제도의 부재론과 대학 선배인 이따니(猪谷善一) 교수의 『조선경제사』에서의 식민지 합리화 사관을 맹비난 공격하고 고대조선과 고구려 그리고 신라시대를 3편으로 나누어, 즉 제1편에서 원시씨족 사회, 제2편에서 원시부족국가의 제형태 제하에 삼한시대와 고구려의 초기적 사회제도를 그리고 제3편에서 고구려와 신라의 노예국가시대를 분석하고 있다. 즉, 노예제의 생산조직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1937년에 출판된 『조선봉건사회경제사·上』은 부제로 고려편이라 되어 있어 고려시대의 사회 및 생산조직을 분석하고 있다.

백남운은 그 외에 1920년대와 1930년대에 34편의 논문과 논설문을 학술지, 잡지 그리고 신문에 발표하였고, 후일 1945년 8월 15일 직후부터 조선학술원 창설과 학술용어사전 편찬에 정력을 기울였으나 1946년부터 정치관계 평론과 주장에 관한 논설문만이 발표되었다. 40편의 논문과 시사평론을 분야별로 보면 〈표 2〉와 같다.

그 외에 한국의 경제학자로서 이 기간에 발표한 저서와 논문을 저자별로 보면 다

〈표 2〉 분야별 논문 및 시사평론

분 야	편 수
이론경제와 경제사	20
해외경제	3
농업 및 한국경제	11
시사평론	6
계	40

음과 같다. 1920년대는 경제학 분야의 논문이나 저서가 위의 백남운과 이순탁 외에는 찾아볼 수 없고 1931년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1930년과 1931년 사이 성대 법문학부 조수였던 朴文圭의 1933년 「조선사회분화기점으로서의 토지조사사에 관하여」라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박문규는 해방 이후에도 토지문제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1935년에는 4편의 논문과 저서가 발표되었는데 金光鎭과 朴克采의 것이었다. 김광진은 동경상과대학을 졸업하고 성대 법문학부 조수로 1929년부터 1930년까지 2년간 있다가 보전 교수로 자리를 옮겼고 박극채는 경도제국대학 경제학부를 마치고 1933년부터 보전 경제학교수로 재직하였다. 김광진의 논문은 「이조 말기에 있어서 조선화폐문제」였고, 박극채 논문은 「지대법칙과 가격법칙」이었다. 저서로서는 李勳求의 『조선농업론』과 印貞植의 『朝鮮의 農業機構分析』이었다.

이훈구는 동경제국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유학을 마친 후 귀국하여 처음에는 농업경제학 담당교수로 평양 송실전문학교에 1920년대와 1930년대 재직하였다. 인정식은 해방 이후 동국대학에서 경제사 담당교수로 재직한 기록은 있으나 성대 법문학부를 마친 후 1920년대와 1930년대 고등교육기관에 재직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1936년에 李清源의 『朝鮮社會史讀本』이 일본어로 출판되었다. 1937년에는 김광진의 「고려사회의 생산양식」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柳子厚의 『朝鮮貨幣考』라는 단행본이 1940년에 출판되었다.

한국에서 1920년대와 1930년대 고등교육기관에서 재직했던 교수를 기관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최초로 경제학교수를 확보하고 경제학 연구가 왕성했던 기관은 연희전문학교 상과를 들 수 있다. 연희전문 상과에 위 기간 동안 재직했던 교수와 출신학교 그리고 담당과목을 분야별로 보면 〈표 3〉과 같다. 담당과목은 묶어서 경제학으로 표시하고 상학분야와 겹쳐 있는 경우는 병기해 둔다.

위의 교수 가운데 백상규는 1923년에 보전 상과로 옮겼고 조병옥은 1929년에 사임하고 학계를 떠났다. 최순주는 경제학과 상학 과목을 담당하는 한편 학교의 회계주임을 겸하기도 하였다. 노동규는 1928년에서 1932년까지 이화여자전문학교에 있다가

〈표 3〉 1940년 이전 연전에 재직했던 교수

성명	출신학교	재직기간	담당과목
백상규	미국 Brown Univ.	1915~1922	경제학
이순탁	경도제대	1923~1950	경제학
백남운	동경상대	1925~1946	경제사
조병옥	Columbia Univ.	1925~1929	재정학
최순주	N.Y.U.	1930~1945	경제학
노동규	경도제대	1933~1941	경제학
육지수	동경제대	1936~1945	경제지리
신태환	동경상대	1939~1947	경제학

1933년에 연전으로 옮겼으나 1938년 투옥되었다가 1940년 출옥 후 바로 병사하였다. 신태환도 동경상대 졸업과 동시에 연전에서 강의하다 1940년대 초 일제의 탄압으로 잠시 학교를 떠났다가 해방 후 복귀했으나 1948년에 동국대학으로 옮겼다.

교육기관의 규모는 보전보다 경성고상과 성대가 크지만 그 곳에는 한국인 전임교수가 없었고, 다만 助手와 예과의 강사 1명이 있을 뿐이었다. 이런 이유로 보성전문상과의 교수진을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1940년 이전 보전에 재직했던 교수

성명	출신학교	재직기간	담당과목
홍성하	일본중앙대	1922~1938	경제정책
백상규	Brown Univ.	1923~1945	경제학
김광진	동경상대	1932~1939	경제사
박극채	경도제대	1937~1945	경제학
윤행중	경도제대	1937~1945	경제학

위에서 백상규는 연전에서 옮겨 왔고, 김광진은 동경상대를 마치고 성대 법문학부 경제사 조수로 1929년부터 1930년까지 있다가 보전 강사로 출강하였다. 그 후 1932년부터 경제사 담당교수로 정착하게 된다. 그러나 1939년에 사임하고 혜화전문학교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박극채도 경도제대를 마치고 보전 강사로 1937년에 보전에 정착하게 되고 윤행중도 경도제대를 마치고 1930년부터 1936년까지 혜화전문 전임교수와 보전 강사로 있다가 1937년부터 보전 상과 경제학교수로 안정하게 된다.

이상의 두 기관 외에 경성고상과 성대가 있지만 한국인 교수는 없었고 이화여전, 숙명여전, 혜화전문 등의 전문학교가 있었지만 경제학 연구동향은 미미할 뿐이다.

## VI. 결 론

한반도에서 대상기간에 경제학 연구활동을 정리해 보았다. 그러나 자료의 미비와 조사의 태만으로 불충한 결과밖에 얻을 수 없었다. 특히 편견이라 할 수 있겠으나 연구활동은 이순탁과 백남운의 업적만이 조사되었을 뿐 다른 학자의 업적은 완전히 조사하지 못하였다. 위 두 사람의 업적은 연전교수였기 때문에 정밀하게 조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백남운의 경우는 연전 교수였기 때문이 아니고 연구활동이 탁월하였기 때문에 그의 논문과 평론이 정밀하게 조사되었다.

대체로 조사된 것만으로는 이순탁과 백남운이 다같이 연전에 있었음에도 두 사람 모두가 한국을 대표할만한 탁월한 교수라 할 수 있고, 또 두 사람은 서로 같은 노선의 학자로 분류된다. 즉, 이순탁도 마르크스 경제학자이고 백남운도 사적 유물사관을 도입했기 때문에 마르크스 경제학자로 생각한다. 더욱이 이순탁은 경도제대 카와카미 하지메의 제자였기 때문에 마르크스 또는 사회주의 경제학자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순탁이 초창기에 마르크스 경제사상등을 해설했지만 실제 그는 마르크스 경제학자로 볼 수 없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이순탁이 경도제대 재학중인 기간에는 카와카미가 마르크스 경제학을 깊이 연구하지 않았을 때고 또 이순탁은 일찍이 기독교에 입문하여 이념적으로 사회주의 경제학자로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해방 이후의 그의 행적을 보아도 사회주의 경제학자로 볼 수는 없다.

백남운의 경우는 두 권의 저서에서 보듯 사관이 사적 유물사관이었다는 점과 해방 이후의 행적으로 보아 사회주의 경제학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발표한 많은 논문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경제사 문제에 대한 진지한 분석과 과학적인 검토를 시도한 노력으로 보아 공산주의 이념의 정객으로 전락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더욱 검토의 여지가 있다.

성대와 경성고상이 연전과 보전보다 규모가 큰 연구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위 대상기간에 뚜렷한 업적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1940년대 전시체제에 들어가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연구결과물이 출판되고 있다. 1922년과 1926년에 개교하였고 또 모두가 일본인 교수였기 때문에 한국의 사정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리라 짐작되고, 전시체제하에서 학문연구는 기대할 수 없다. 1930년대 후반부터 한반도에서 학문연구가 말살되고 있었다. 다만 앞으로 자료의 조사와 분석을 필요로 하고 있다.

※ 참고 문헌 ※

1. 박영재 역, 『근대 일본사』, 역민사, 1992.
2. 방기중,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3. 변태섭, 『韓國史通論』, 삼영사, 1991.
4. 이기준, 『教育 韓國 經濟學 發達史』, 일조각, 1983.
5. \_\_\_\_\_, 『韓末 西歐經濟學 導入史 研究』, 일조각, 1985.
6. 이순탁, 『最近世界一周記』, 漢城圖書出版株式會社, 1934.
7. 조기준, 『韓國資本主義 成立史論』, 대왕사, 1973.
8. \_\_\_\_\_, 『韓國資本主義 發展史』, 대왕사, 1991.
9. 하일식 편, 『彙編 — 백남운전집4』, 이론과실천, 1991.
10. 한국사연구회 편, 『韓國史學의 研究』, 을유문화사, 1985.
11. 홍성찬, “일제하 李順鐸의 農業論과 해방직후 立法議院의 토지개혁법안”, 『崔虎鎭博士 講壇50周年記念論文集』, 박영사, 1993.
12. \_\_\_\_\_, “일제하 延專商科의 經濟學風과 ‘經濟研究會事件’ ” 「연세경제연구」, I(창간호),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1994.
13. \_\_\_\_\_, “한국근현대 李順鐸의 政治經濟思想研究”, 「역사문제연구」, 창간호, 1996.
14. 安藤良雄 編, 『近代日本經濟史要覽』, 東大出版會, 1975.
15. 大內兵衛, 『經濟學50年・上』, 東大出版會, 1959.